포천사회 知識人 ㉘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양 무 목 원장

국내 유일 統一대학원 CEO

"時間, 情熱, 돈을 投資해야 어떤 일이든 成功한다"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은 통일정책과 통일 이후의 준비에 관한 교육과 연구로 통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연구로 북한문제 전문가 양성, 국가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와 안보정책의 평가와 개발로 안보전문가 양성, 통일과 북한, 국가안보에 관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교육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양무목(70·**사진**) 원장은 독립채산제(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 통일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양 원장은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생국 정치론을 전공하여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비교정치 및 한국정치를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인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경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후에 대진대학교에서 정치학개론, 한국현대정치, 국제정치, 북한사회 등의 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학술위원, 대진대 객원교수로 현재는 통일대학원을 맡아 경쟁력있는 대학원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있다.

양 원장은 "사람은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찾는다. 고통스러울 때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글을 썼다"며 현재는 시인이며 수필가, 평론가, 소설가로 다양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한양대 현대국어 교재에도 양 원장의 수필 작품이 수록돼 있다.

현재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양 원장이 통일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7년여 동안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신규로 부임하는 교수들에게 야전침대를 선물한다고 한다. 청계천에서 2만5천원이면 구입한다고 한다. 연구실에 야전침대를 들여놓고 연구와 통일대학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로 통일대학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홍기형 총장 재임시절이다. 홍 총장은 모든 대학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를 원했다. 양 원장은 통일대학원 설립 1년 후에 독립채산제의 길을 선택했다. 모두들 우려하고 걱정스러워했다. 역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양 원장이 이처럼 통일대학원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 정열, 돈 투자다. 10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원이라도 투자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양 원장에게는 그래서 보람이 있다. 가장 보람있는 것은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연구실에서 보면 왕방산이 보이고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운동을 한다. 복도 좌우끝까지 왕복한다. 30분동안 왕복하면 땀이 난다.

최근 팔팔한 80대 CEO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돈 있고 힘 있는 회사 오너들이다. 이제 대학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제를 활용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고 학교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이다.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통일정책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석사과정은 통일학과와 북한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통일학과는 통일학 전공과 통일교육 전공, 북한학과는 북한학 전공과 군사학 전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북한학과는 2004년도에 개설되었고 북한학 전공과 통일학 전공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통일정책 과정은 특별과정으로 학력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양 원장은 통일대학원 발전계획에 대해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한 최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어 학위를 취득하면 상당한 연구 능력을 갖게 되어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교강사진을 확충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통일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법인 이사장님과 대진대학교 이천수 총장님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각적인 활동으로 국무총리상, 일붕문학상, 전쟁문학상, 불교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양 원장의 주요저서와 역서, 시집, 수필집, 소설집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당정치론(법문사·1983) ▶현대민주주의(카알 엘 벡커)(거목·1986) ▶강물로 그린 고독(거목·1987) ▶둘에서 하나로(거목·1988) ▶너와 나(거목·1988) ▶이젠 사랑이 두렵지 않다(거목·1991) ▶깨어있는 그대 귓전에(거목·1986) ▶말로 하지 못한 말(거목·1988) ▶그러나 마음은 둘일 수 없어라(거목·1991) ▶숲속의 바람(거목·1988)

양 원장이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 제국에 대한 서구의 영향(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66) ▶한국정치발전의 시련에 관한 一고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청구논문,1981)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一고찰(연구논집, 제11집, 동국대학교 대학원,1981) ▶한국의 야당사로 본 정치발전 과제(경원대신문, 1987) ▶월북작가와 작품의 해금 문제(예술계 10월호, 한국예총) ▶문화발전과 통일(월간 장르, 9월호, 장르사,1989) ▶도와 법의 회복(금강,11월호, 월간 금강, 1989)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와 극복(새물결 봄호 자유평론사, 1990)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자유공론, 5월호, 자유공론사, 1992) ▶대순사상과 한국정치-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대순사상 논총 제4집,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비교(통일논총 제2집,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4)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本人이 원하고 學校가 필요로 하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契約制 활용

취재파일 지역사회 한탄강댐 건설 대처

홍수조절용 반대 당위론 발표수준

지역사회 의견수렴 정책대안 마련 水公과 협의해야

본지 취재국장 하승완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단순 홍수조절용 댐은 반대하고 다목적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발표한 이후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댐 건설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여년 동안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놓고 철원군과 연천군, 포천시 수몰민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지만 포천사회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한탄강댐 문제가 포천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시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8월22일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0월10일 포천시 부시장 일행이 댐건설 예정지를 답사하고서야 비로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포천시는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등과 27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다.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말했던 것처럼 댐 건설이 처음부터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실을 포천시는 알고 있었다. 다만 포천시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한탄강댐 문제가 이관된 후 수자원공사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과 협의했을 뿐 포천시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탄강댐 건설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말을 믿겠는가?

포천시의회 역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추진과정을 알고 있었을 뿐 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주민들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포천시의회는 홍수조절용댐은 반대한다면서 10월19일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직후 시민궐기 대회 개최와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가 싶더니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활동현황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1일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추진키로 의결하고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탄강댐 특위)'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도 댐 건설에 관한 자체적인 방향성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탄강댐 특위를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포천시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다목적용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탄강댐 특위 주관으로 댐 건설을 지역문제로 이슈화, 홍수조절용댐의 불합리성 집중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특위 운영을 지난 10월3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기로 의결했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탄강댐 특위는 홍수조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다목적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위의원들이 댐건설 예정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목적용댐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추진과정, 즉 한탄강댐은 처음부터 홍수조절용이라고 설명했고, 사격장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댐건설 예정지 방문이후 곧바로 댐건설 방향설정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처음 설명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또 댐건설의 현황을 파악한다며 지난 17일과 18일 1박2일 일정으로 평화의 댐을 비롯한 안동댐, 임하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뿐 방향설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위의원들은 12월 개최되는 포천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환경과 댐 관련 교수들과 의견을 청취한 후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기본방향이 설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 추진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8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을 최종 확정하자 10월10일 수몰지역을 방문한 포천시 부시장 일행에게 댐건설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했다. 이후 10월20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을 위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댐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 관계자, 3개시군 주민대표와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처음부터 댐건설을 반대해 온 철원군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수혜를 받는 파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1월1일 댐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포천시의원들에게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7일과 18일 평화의 댐과 임하댐, 안동댐 견학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내년초 댐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곧바로 용지보상을 실시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강림 시의회 의장은 댐건설에 따른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늦은 감은 있다. 무조건 다목적용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댐건설에 관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 후 12월 정례회 동안 환경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위활동은 다목적용댐으로 가기 위해 확고한 틀을 잡아 놓았다. 정확한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탄강댐 건설추진 방향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하려고 한다면 댐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건설되는 홍수조절용댐인 만큼 효용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연간 15일간의 담수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임진강 유역에 얼마만큼 홍수조절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수혜를 받는 홍수피해 우려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천시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 댐건설에 따라 상대적 피해지역에 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는 분명히 사용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 애 화
031)542-1887~8